

법적 근거없는 명예·전문 포교사 관·참·나?

“좋은 취지 무색한 행정 빨리 시정돼야”

지난 9월 3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제11회 포교사 품수식. 이날 425명의 조계종 신규포교사와 또 다른 포교사들이 탄생했다. 3명의 '명예전문포교사'와 24명의 '명예포교사'.

사회복지(권대자), 불교문화해설(권중서), 신행지도(김정엽)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활동해 온 포교사들이 명예전문포교사 자격을 품수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전신인 학사불자회를 창립한 후 현재까지 포교 현장에서 뛰고 있는 대불련 출신 24명에게도 명예포교사 자격증이 수여됐다. 종단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조계종 포교원이 마련한 '전문포교사 선발 및 관리령(안)'에 따르면, '전문포교사'란 특정 포교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돼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자격을 획득한 자를 일컫는다. 즉 포교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반포교사 중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주는 것이다.

이에 비해 '명예포교사'는 일반포교사 자격이 없더라도 오랫동안 포교 관련 활동을 해 온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명예직이다.

1998년 포교원이 마련한 '명예포교사 시행세칙(안)'에 따르면, 명예포교사는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포교활동에 종사했거나 △불교 신행단체 지도경력 10년 이상 △불교 전문서적을 3권 이상 출간했거나 불교관련 논문 10편 이상을 학술권위지에 발표 △구위를 선양한 불자체육인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전문포교사나 명예포교사 모두 법적인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없다. 전문포교사의 경우 포교법 제37조 '포교사는 일반포교사와 전문포교사로 구분한다'는 문장 하나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이다. 명예포교사는 종법령에 단언조차 없다.

전문포교사 선발 및 관리령(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했지만 선발 기준에 논란이 있어 최근에서야 포교원의 입장을 정리하고 기획실로 안을 넘겼다. 명예포교사 또한 98년 당시 자격증 발급을 우려해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제11회 포교사 품수식에서 전문포교사 외에 '명예'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교육지침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조계종 기획실측은 "영이 관련 기관에 계류돼 있는 것만으로도 품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유추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전문포교사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포교가 활성화될 뿐 아니라 포교대상에 따른 '맞춤포교'가 가능해져 보다 깊이 있고 자연스러운 포교가 이뤄질 전망이다. 명예포교사 제도 또한 불교계 내외의 저명인사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전문포교사 및 명예포교사 제도를 정착·활성화하기 위해선 먼저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일이 선행돼야 선발 및 운영, 관리가 가능해지고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포교사 제도는 전문포교사 선발 및 관리령(안)이 종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명예포교사 제도 또한 기획실에 계류돼 있는 '종단 각종 자격지 선발 및 관리에 관한 령'에 의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영에는 명예포교사를 비롯해 선(禪)포교사, 어린이·청소년지도사 등 종단 각종 자격지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명예포교사 선발 및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세칙들은 따로 준비돼야 한다.

조계종 기획실의 한 관계자는 "큰 틀에서 전문포교사 선발 및 관리령과 종단 각종 자격지 선발 및 관리에 관한 령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자구 수정이나 다른 종법령과 충돌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종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거센 '동북공정' 속 고대 불교사 연구 현주소는?

학회 전무, 고구려 역사 뺏길 지경

남북한·중 연계 연구로 '논리' 개발을

한국고대사는 물론 불교사까지도 왜곡하는 중국의 '동북공정'이 또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다. 이에 대해 NGO단체들과 고구려연구회 등 재야 학술단체들은 항의집회는 물론 '평가와 대응 방안'을 내놓기 위한 학술대회가 한창이지만 불교계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고구려사는 고구려의 광활한 영토는 물론 그 정신과 문화까지도 고조선과 부여를 계승하고 다시 그 맥을 발해에 잇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사를 잃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불교사적 측면에서의 문제도 심각하다. 고구려는 삼국 최초로 불교를 받아들여 백제와 불교 그리고 일본에게까지 전해주었다. 때문에 고구려사를 빼앗기면 불교의 조전성 동북공정의 고대불교사 왜곡에

대한 연구 논문은 작년에 발표된 충남대 사학과 정선여씨의 '고구려 불교사 연구'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 논문 역시 고구려 불교의 사상적 연구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기존 불교사료(삼국사기, 일본서기 등)를 바탕으로 한 교단운영 체제와 한중일 삼국의 불교 교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동북공정에 따른 한국사와 불교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뭘까. 역사학자들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 △한국·북한·중국의 역사학자들과 연계한 연구 활동 등을 제시한다.

단국대 서영수 교수는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중국이 조사했던 역사적 자료에 대한 검토와 해석부분인 학문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고구려 테마파크 유치, 고구려 박물관 건립, 관련 서적 홍보 등 사회적 대응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와 같은 연구방법이나 국경이론을 가지고는 아무리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며 "이와 관련된 데이터의 양보다는 중국에서 내 놓는 '통일적·다민족국가론'과 같은 논리에 대항할 수 있는 한국 나름의 논리 개발도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노병철 기자 sasman@buddhapia.com



크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논산 영주사 조실 풍운 스님



도반의 향기 17면
군법당의 '어머니' 박미영 회장

시방세계 9면
제6회 전국불교음악제

장애인, 문화 생산자로... 4면
오후불식 어떤 도움? 18면
제디명인을 찾아서 26면
부산영화제 불교영화 28면



새 옷 입으신 법주사 부처님들

로 조성된 법주사 삼존불은 그 소재의 희귀성과 더불어 원만한 상호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 개금불사 회향을 맞아 법주사는 북장불사·보살개수계·10만등 점등 등의 행사를 병행했다. 관련기사 7면 사진제공=법주사

제12회 신행수기 공모

- ▶ 원고지 30매...12월 16일 마감
- ▶ 접수 이메일: bypark@buddhapia.com
- ▶ 전화문의: (02)2004-8241

'삼국유사' 중국어로 번역 상명대 권석환 교수, 연말 북경서 출간

최근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한 한국 고대사의 역사왜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단군을 고조선의 국조로 제시한 <삼국유사>가 중국어로 번역돼 화제다.

한국문화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2년간 번역작업을 진행해온 상명대 중국어과 권석환 교수가 9월 13일 삼국유사 집필자인 인각사를 참배한 뒤 중국어로 번역한 초고본을 공

개했다. 권석환 교수는 "삼국유사는 우리 고대사를 중국과 대등하게 서술하고 있다"며 "중국의 동북공정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로 삼기위해 삼국유사가 갖는 의미를 뒷부분에 삽입했다"고 밝혔다.

권 교수가 번역한 <삼국유사> 중국어판은 연말에 북경 인민출판사(예정)에서 출간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진년보이차
진품자사호 직수입
紅茶園
010-6699-5555
02-744-3311

경건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역 초청
동선사 강설대법회
의룡 스님
육초단경/9월 23일
동선사 설법전, 031)527-1951-3

樹木葬

수목장

천년의 세월을 지켜온 나무처럼...
영원토록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목장은 나무와 고인이 하나되어
자연과 함께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묘법입니다.

사람은 사대(四地, 지, 수, 화, 풍)와 오운(五色, 수, 상, 행, 식)으로 이루어진 한시적인 생명체이며, 죽음이 이것이 각각 흩어져 자연으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수목장은 자연장의 취지를 잘 구현하면서도 추모할 구체적인 대상이 존재하므로 한국 전통의 장묘문화를 가장 잘 계승한 장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창건된 지 1천6백년, 부처님의 가르침과 위신력을 통하여 죽은의 율장과 죽민의 행복, 조상들의 명복을 위하여 단 하루도 스님들의 명복과 목탁 소리가 끊이지 않은 지장성지 전등사 수림원에 선망 부모와 형제자매 등 인연 있는 영혼들을 모신다면 반드시 천당과 극락에 태어나서 영원한 행복의 즐거움을 누릴 것이며, 후손들은 이생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다음 생에서는 극락왕생할 것입니다.



전등사 수림원
032.937.0125
경악은 김삼만 운수키 685